

## 겸손; 하나님의 성품: 연대 대학교회 설교; 2018/7/15;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초청을 받는 여정이며,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우정을 맺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이 덕목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뛰어난 자질을 소유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덕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 덕목의 반대가 되는 악의 이름은 교만입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3부 8장에서 “가장 큰 죄”라는 이름으로 교만과 겸손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 이 주제가 우정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교만의 특징부터 살펴보십시오.

대체로 어떤 악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방탕해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서 모임을 시끄럽게 하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무심하기에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악은 다른 점에서도 특이합니다. 대체로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비슷한 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동일한 악이 관찰될 때, 상대방을 더욱 미워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악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나, 놀랍게도 이 악만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묘사하지 말고, 1인칭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나겠군요. “내가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의 교만은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분노의 자각이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욱 인정받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자세입니다. 교만은 본성에 의해서(by its very nature) 경쟁적입니다. 여기서 본성에 의해서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른 악들은 대체로 우연에 의해서(by accident) 경쟁적일 수 있으나 교만은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여성이 한 남성을 두고, 또는 두 남성이 한 여성을 두고 경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여인 또는 남성에게 대해서 경쟁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돌리는 죄들은 그 기저에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절이라고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저 여자보다는 예뻐져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 모습은 충분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미모를 갖고 있는 어떤 여자는 돌아다니면서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가운데 불행과 비참함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성적인 충동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자일수록 성적으로 냉랭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동창생보다는 더 성공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는 존재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잘난 척 하는 인간을 견딜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바로 그 충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잘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기에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결코 우정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술주정뱅이들 사이에서 우정이 있으며 동료관계가 형성되며 유쾌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신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교만이 있다면 결코 우정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적대감입니다. 그 적대감은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천사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리로 떨어진 것은 무능함이나 무지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는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우정을 형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정을 방해하는 사람인가? 이 물음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정이 형성되고 우정이 활성화된다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임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회복되고 사랑이 형성된다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몇 가지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론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상대에게나 주변에 기쁨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행복한 느낌에서 떠나가서, '이러한 말을 듣는다니,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근거없는 결론으로 간다면 그것은 교만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고맙다고 느끼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잊고 넘어갈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낮추는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야말로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정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타인들을 자연스럽게 잘 인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데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202)

특히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우정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존재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영원 전부터 신적인 우정(the divine friendship) 가운데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삼위일체(the Trinit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 명의 뛰어난 존재가 영원토록 그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세 존재가 모두 엄청나게 겸손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토록 우정을 간직하면

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매우 겸손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이는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인격을 갖춘 존재는 상대가 하는 말이나 상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넋을 잃고 봐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의 표지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겸손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겸손은 기독교 덕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간혹 명백하게 교만에 찌든 사람인데, 스스로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반적 유신론의 신과 다르기 때문에 이 오류에 빠지기는 제법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반적 유신론의 하나님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커서, 어쩌면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큼니다.

누가 보기에 교만함 가운데 찌들고 또 물들어 있는데, 본인은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를 선전하며, 우정의 형성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거짓된 가상의 하나님 앞에 500원 동전만큼의 겸손을 제공하는 가운데,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는 5만원 지폐만큼의 교만을 얻어내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흡족해 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정죄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2-23)

그렇기에 그렇게 자기기만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텐데,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나 자신이 가상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것이지요. (순전한 기독교, 197)

최악의 악이 신앙생활의 한복판에 침투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덜 나쁜 악들은 마귀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자극하기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곧바로 나오는 악이며, 마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악입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악들에 비해서 더 치명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정에 초청을 받는 여정이며,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입니다.